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⑭ 싯달타 태자, 출가 막전막후



▶ 한줄요약
싯달타 태자의 출가가 시작된다. 그의 출가를 막고자 정반왕은 성문을 막고, 태자에게 향락을 제공했다. 하지만 태자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출가를 시도하자 천신들은 가호를 내려 성 안 사람들을 잠재웠다.

태자 출가 시도에 천신 가호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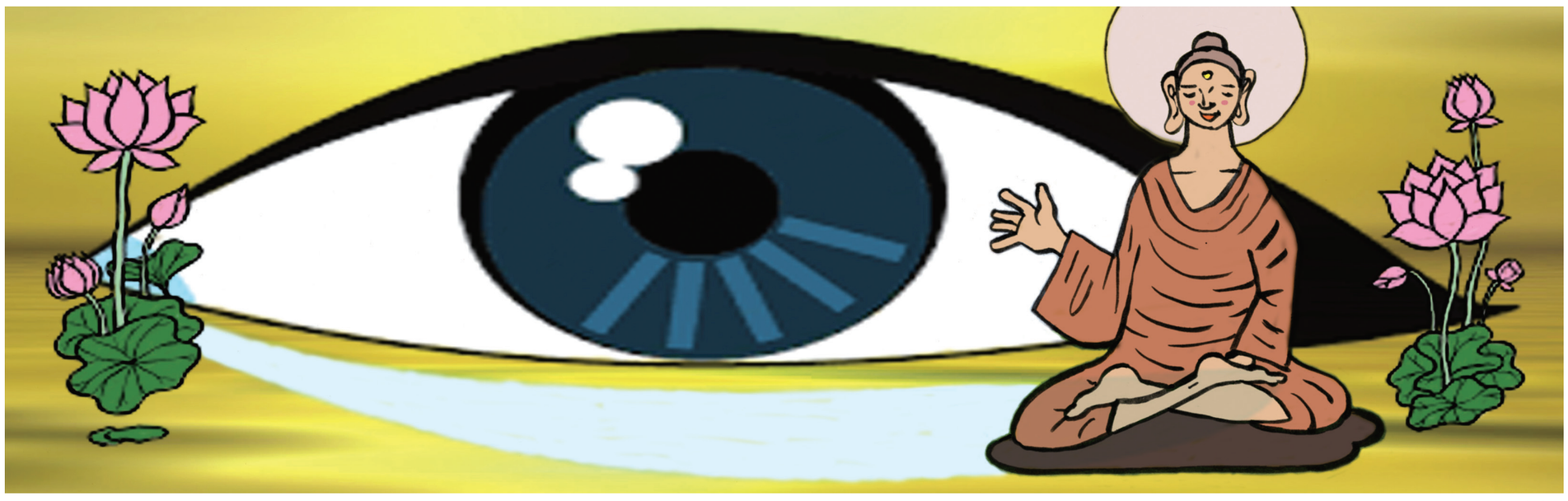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출가에 관련하여 세 번째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제 드디어 출가를 하는 날이 다가왔다. '출가(出家)'는 그야말로 '집을 떠나는 일'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출(家出)과도 비슷한데 불교에서는 '번뇌에 얽매인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수행생활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우바새, 우바이처럼 세간의 불자인 '재가(在家)'의 대립어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집을 떠난다. 필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출하고 싶었다. 화가인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숨도 못 쉬는 집안에서 자란 나는 정말 혼자이고 싶었다. 게다가 당시 집이 서울에 있다는 것은 우리 일곱 식구만 살 일이 별로 없다는 것과 동의어였다. 지방에 사는 온 일가친척이 늘 일이 있거나 일을 하러 서울에 오면 당연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다. 다들 가난했지만 사람 사는 것 같고 정이 넘쳤다고 생각에 잠기지만 그땐 가출을 꿈꾸었다. 그러던 내가 정식으로 집을 나간 것은 동생들이 다 출가를 하고 난 뒤 남들보다 한 10년 늦게 결혼이라는 걸 하고서였다. 인생의 아이러니. 싯달타 태자와는 차원이 다른 나의 불발된 '집 나가는 일'의 추억이다.

싯달타 태자 출가 D-7

상사(相師)가 왕께 사뢰었다.

"이제까지 출가하지 않으셔서 이레가 지나면 전륜왕위로 자연히 오르실 것입니다."

왕이 기뻐하시며 사병을 둘러 안팎으로 막으셨다.

관상가가 아버지 정반왕께 사뢰었다. 일주일만 지나면 전륜왕의 왕위에 오르십니다. 그날은 이월 초하루. 결사적으로 출가를 막은 보람이 있어 앞으로 이레 동안만 태자를 잘 지키면 되는 상황이다. 정반왕은 그 옛날 네 가지 군대인 사병(四兵) 곧 코끼리부대(象兵), 기마 부대(馬兵), 수레부대(車兵), 걷는 부대(步兵)를 시켜 성문을 안팎으로 겹겹이 굳게 막아 지키게 했다.

채녀들은 태자께 들어와 온갖 춤과 노래로 정재(呈才)를 하며 태자를 웃게 하며 갖가지 고운 모습을 지어 보이거늘 태자는 아무 욕심도 일으키지 않으셨다. 욕심은 탐욕의 마음이다, 한 채녀가 말리화만(末利花鬘)을 가지고 들어가 태자의 목에 매어드리니 태자는 꼼짝도 하지 않고 보고 있으므로 그 각시가 도로 매듭을 풀어 밖에 내던졌다. 말리는 누른 빛이라 하는 뜻이다.

출가 일주일 전 곱고 아름다운 채녀들은 온갖 재능으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태자를 기쁘게 하려 애를 쓴다. 지금으로 치면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각 잡힌 칼 군무와 고운 노래로 세상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걸그룹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출가 결심을 굳힌 태자에게는 더 이상 그들의 모든 것이 아름답지도 즐겁지도 않은 아무 감정이 생기지 않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한 채녀가 그런 태자에게 향기로운 말리화 꽃목걸이를 태자의 목에 매어주며 매력을 뽐내본다. '말리화만'의 '화만(華鬘)'은 '영락(瓔珞)'이라고도 하는데 꽃을 실에 꿰어 목에 걸거나 머리에 장식하는 것이다. 지금도 인도나 남방에 가면 환영의 인사로 걸어주기도 하고 아가씨들은 머리에 정성스레 장식하고 사원에 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태자가 그럼에도 미동도 하지 않자 화가 난 그 각시가 그 꽃다발을 다시 풀어 던져버렸다고 한다. 아마도 채녀들 중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였을 것이다. 세상에서 그녀가 매력을 뽐내면 어느 누구라도 매혹되지 않는 이가 없었으리라.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었을 태자에게 건넨 화만, 그것을 다시 내던진 그녀의 태도는 당차다 못해 목숨을 각오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다.

내가 채녀였다면 어떠하였을까. 나는 나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였는데 보람은 커녕 무시를 당한 것이다. 종종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기곤 한다. 나로서는 정말 하느라고 했는데 시절인연이 맞지 않아서 너무 앞서거나 한 발 늦어서 어느 날 애써 만든 말리화만을 내던지고 싶은 때가 생기는 것이다. 대부분 용기가 없어 꾹 참고 살지만. 그러므로 나는 이 채녀 각시에게 흔쾌히 한 표.

사십구장

각시가 꾀려고 얼굴 곱게 꾸며 들어가 말리화만을 태자 몸에 매어드렸건만

태자의 덕(德)이 굳으시므로 눈깜짝하지 않고 바라보시니

채녀각시 말리화만을 도로 내다 버리니〈월천 18b〉

> **싯달타 태자 출가 막고자**
> **사병 통해 성문 철통봉쇄**
> **채녀들 온갖 향락도 제공**
>
> **결심 선 태자의 출가 결행**
> **천신 나서 사람들 잠 재워**

월인천강지곡은 위와 같이 노래한다.

채녀 각시 태자의 마음에 들려고 예쁘게 단장하고 고운 모습으로 말리꽃 화환을 걸어드려도 목석처럼 눈하나 깜짝이지 않고 그저 바라보시니 그 아가씨 말리화만 내다 버리네

싯달타 태자 출가의 날

2월 초이렛날 밤에 태자가 출가하실 시절이 다다르자 스스로 생각하셨다. 성문 밖에 나가 다니시던 해 2월이다.

'나라 이을 아들을 장차 배게 하여 아버님의 원을 이루었다' 하시고 사람이 보지 못하게 방광을 놓아 사천왕과 정거천에 이르기까지 비추시니 제천이 내려와 예경하옵고 사뢰었다.

"무량겁부터 하신 수행이 이제 와 익었습니다." 태자가 말씀하셨다.

"너희 말이야말로 옳타커니와, 성 안팎에서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노라." 제천의 힘으로 사람들이 모두 졸게 하였다.

싯달타 태자의 출가일은 2월 7일과 4월 7일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석보상절〉에서는 2월 7일설을 따르고 있다. 〈수행본기경〉에서는 태자가 19세가 되던 해 4월 7일에 출가하였다고 한다.

출가하는 날 후사를 이을 아들을 태어나게 하였음을 재차 확인하고 아버지 정반왕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다고 거듭 말한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방광을 하니 하늘의 여러 신들이 내려와 출가를 돕는다.

오십장

출가하려 하시니 하늘에 방광(放光)하시어 제천신(諸天神)이 내려옵니다

출가하실 때이므로 성(城) 안을 잠들게 재우려고 오소만(烏蘇慢)이 또 옵니다

〈월인천강지곡〉은 성 안의 사람들을 잠들게 하려고 '오소만'이라는 졸음의 신령이 등장한다. 구반다(鳩槃茶)라고 부르는데 가위눌리게 하는 신이라고 한다. 졸음의 신도 흥미롭지만 가위 눌리게 하는 신이라니 신선하다.

채녀들은 허공꽃 꼭두각시

변조리던 아름답게 꾸민 각시들이 다리를 드러내고 손발을 펴 버린 채 죽은 것같이 가로세로 누워있다. 콧구멍은 떼꾼하게 움푹 뚫린채 치켜져 있고 아랫도리를 감추지 못하고 자며 코와 침을 흘리고 오줌, 똥까지 싸며 코를 골고 빈 입을 씹는 시늉을 한다. 방귀를 뀌고 풍류하는 악기들을 부둥켜 안고 깔려 있거늘 그때까지 촛불이 죄듯이 밝게 비취고 있으니 태자가 보시고 이렇게 여기셨다.

'여자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로다. 분과 연지, 영락, 옷, 화만, 뒤꽂이, 팔찌로 꾸미고 있을 때는 보기 사나운 사람인 줄 모르고 속아 탐하는 마음을 내게 되니 지혜로운 사람이 정히 살펴 보면 여자의 몸이 꿈같으며 꼭두각시 같도다.'

인간의 실상을 목도하는 장면이다. '변조리다'는 고어사전에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앞뒤 문맥과 아름답게 단장한 채녀들임을 감안하여 해석하였다. '떼꾼하다'는 쑥 들어가고 생기가 없다는 뜻인데 보통 '눈이 떼꾼하다'고 쓰인다. 여기서 콧구멍이 떼꾼하다는 것은 누운 자세에서 콧구멍이 들린 채로 움푹하게 뚫린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았다. '오줌 똥'의 똥은 '찌'로 나와 있는데 '아끼다가 찌로 간다'는 속담의 '찌'로 해석하였다.

그밖에도 이제는 정확한 뜻을 모르게 된 우리 옛 표현들이 대방출된 이 단락을 나는 석보상절 3권의 백미로 꼽는다. 특히 '빈 입 씹다' 같은 표현은 잠꼬대하듯이 또는 아기들이 자면서 젖먹는 시늉을 하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는가. '뒤꽂이'로 번역한 것은 '곶'인데 꽂는 것을 의미한다. 비녀와 같은 꼬챙이로 머리를 장식하는 장신구로 보았다. 그리하여 비녀를 포함한 머리 여기저기를 장식하는 '뒤꽂이'라 번역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여인들의 이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적나라한 추한 몰골을 형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쩌면 더욱 인간적이고 살아있는 표현이 많아 마음에 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여인들의 허상을 깨고 본래 면목을 통찰하면서 꿈같고 꼭두각시같구나 라고 갈파한 구절은 두고두고 곱씹을만하다. 〈석보상절〉 원문에는 '곡도'라고 하였는데 이는 '환(幻), 허공꽃, 허깨비, 눈앞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곡두'에 '각시'를 붙여 '꼭두각시'가 된 것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사단법인 대한선불교 원효종
대한불교 원효종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

총 무 원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요산정사
요산 청암

종 정 성우 자윤 원로원장 혜륜 법진
종회의장 청산 태일 호법원장 영민 현응
종회의원 및 종도일동
법률고문 곽태철 (현 법무법인 대서양 대표 변호사 / 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TEL. (052) 238 8010
FAX. (052) 238 7010

※ 종도 등록 안내 : 분담금 및 등록비 없음. 등록 수 제한 있을 예정.
※ 2022년 1월 중 금강계단 수계 예정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